

[취재] 넷이벤츠 인터뷰 : 메타스위치 스티브 글리브 VP

2011.04.11. 20:32 지난 2011년 4월 6일과 4월 7일 양일 간, 말레이시아 랑카위 안다만 호텔(The Andaman Hotel, Langkawi, Malaysia)에서 '2011 넷이벤츠 아시아태평양 기자간담회(2011 NetEvents APAC Press Summit, 이하 넷이벤츠)'가 개최되었다.

넷이벤츠는 통신 및 네트워크, 보안 기업의 C 레벨 임원들과 관련 시장조사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업계 동향 및 각 기업의 전략 등을 소개하는 정기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IT 보안, 무선 기술, 영상 회의, 클라우드 컴퓨팅, 차세대 통신망, 통신 인프라 등 업계 이슈에 관한 기업 및 시장 조사기관의 발표와 패널토론 등이 진행되었다.

넷이벤츠는 키노트 등으로 구성된 정규 프로그램 외에, 연사들과의 인터뷰 순서가 양 일간에 걸쳐 마련되었다. 아크로팬은 대한민국 공동취재단의 일원으로, 메타스위치 네트워크스 스티브 글리브(Steve Gleave) 마케팅 VP와의 인터뷰 세션에 참여했다.



메타스위치 네트워크스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에게 VoIP 솔루션, IMS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다. 영국회사인데, 북미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주로 전개하고 있다. 회사 직원은 600명 정도로, 500여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에서는 세 가지 활동이 주를 이룬다. 전세계 음성 서비스, 고객사 지원,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는 장비를 직접 제작/생산하는 일 등이다. 메타스위치는 자체적으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되려는 것은 아니고,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을 돕는 형태의 비즈니스에 전념한다.

한편, 한달 전에는 메타스위치가 자체적으로 '쓰루투(Thrutu)' 서비스를 런칭했다. 이 서비스는 리얼타임으로 걸려오는 전화에서 콘텐츠 공유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5개월 만에 디자인되어 서비스가 런칭된 것이다. 전화를 걸게 되면, 전화 연결 중 스크린 위에 조그만한 이미지가 오버레이되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정보를 보낼 수 있다. 연락처 포인트, 사진정보, 위치정보 등을 보낼 수 있어 유용하다.



Q1. (아크로팬) 메타스위치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장비들의 운영체제는 자체개발한 지적자산인가, 아니면 시스코/휴니퍼 등의 타 벤더 라이선스인가?

인프라스트럭처는 메타스위치의 소프트웨어에 기반을 두고 있다. 표준 리눅스 서버 상에서다. 시스코 ISO, 쥘노스 같은 그런 건 없다. 보이스 인텔리전스다.

Q2. (아크로팬) NFC가 나오면서 크립토허을 심거나 게이트킈핑 레이어 등을 거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런 기반에서 특정 앱 구동 여부를 결정하는 형태의 서비스도 있는가?

앱은 모두 다 네트워크 상에 있는 서버에서 구동된다. 핸드셋에 앱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RCS 같은 경우에는 핸드셋에 임베디드될 수 있다. 메타스위치에서 NFC를 이용할 수 있는데, 핸드폰에 임베디드되는 비즈니스는 안 한다.

<http://www.acrofan.com/ko-kr/live/content/?mode=view&cate=0303&wd=20110411&ucode=0803030202&page=1&keyfield=&keyword=>